

# 직령의 부위별 형태 특성과 상호간의 관련성 연구

이 주 영\* · 권 영 숙\*\*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강사\*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Features of Parts of Jikryug and Relations Among the Features

Joo-Young Lee\* · Young-Suk Kwon\*\*

Instructor, Division of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4. 3. 8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atures of parts of Jikryung and relations among the features. Results of the study can be described as follows.

1. The short front and long rear of Jikryung was changed into the long front and long rear of the dress in the late 16th century. Kalgit of quasi-square style as double collar was changed into that of common collar i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n into common semi-circle collar in the early 17th century, when double Sup was also changed into single Sup. Narrow sleeves of Jikryung were replaced by bean chaff-shaped i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n by wide ones in the early period of the next century. The shape of the side hem of Jikryung was changed from rectangle into trapezoid in the early 17th century. Triangle-shaped Moo was changed into trapezoid-shaped one i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n again into triangle in the late 17th century.

2. Changes in shapes of the parts of Jikryung were made with them correlated. The collar of Jikryung saw change in its form from double to common as its width was reduced. Double Sup was changed into single one and the narrow, short coat string into the long one as Jikryung became a dress needing less adjustment. The sleeves widened as the length of whajang increased. The side hem of Jikryung saw change in its shape from rectangular to trapezoidal one as its position was changed. Trapezoidal Moo was replaced by triangular one as the sleeve of Jikryung was changed in shape.

3. Changes in shapes of the parts of Jikryung influenced the aesthetic beauty of the dress itself. In its first period, Jikryung was simple with long, slim silhouettes. In its second period, the dress was rich with increased volume. Finally in its third period, the dress was characterized by the harmony of simpleness and richness.

Key words : Jikryung(직령), features of parts(부위별 형태 특성), relations among features of parts (부위별 형태 상호간의 관련성), aesthetic beauty of dress(복식미)

## I. 서언

직령은 조선시대에 왕 이하 천인계급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에 따라 四禮服, 常服, 便服 등으로 널리 착용된 대표적인 포제이다. 직령에는 것이 곧으면서 겨드랑이 아래 옆선에 옆자락이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가 모두 포함되며, 곧은 것과 옆자락은 형태면에서 직령이 다른 포제들과 구별되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본 연구는 직령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고찰하였던 前報<sup>1)</sup>에 이어 직령의 부위별 형태가 변화되는 양상과 시기, 그리고 부위별 형태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직령의 외관은 조선시대 전 시기 동안 서서히 변화된다. 직령을 구성하는 부분 단위들, 즉 옆자락, 소매, 깃, 섶 등의 부위별 형태가 변화됨으로써 전체적인 외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변화 양상을 보면 점점 작아지는 부위도 있고 점점 커지는 부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직령의 외관은 조선 전기에는 길고 넓어 넉넉하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취하다가 후기 로 갈수록 점점 짧고 좁아져 간소하고 긴장된 실루엣으로 변화된다.

前報에서 직령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부위는 옆자락으로 고찰되어 옆자락의 구성법을 중심으로 직령의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즉 옆자락의 모양이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박주름형, 뒤젓힘형의 순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직령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부피감은 점점 축소되고 간소화되었다. 그런데 옆자락 외에 깃, 섶, 소매, 옷길, 옆트임, 고름 등의 부위도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외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욱이 옆자락을 포함한 이들 부위별 형태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직령의 부위별 형태가 변화되는 양상과 변화 요인,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등을 고찰하여 직령의 형태 변화에 대하여 보다 세분화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직령의 형태고찰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김미자(1981)는 조선시대 각 시기에 따른 직령의 형태를 제시하였고,<sup>2)</sup> 이해영(1989), 박성실(1992), 양숙향(1996), 장인우(1997) 등은 포제 전반을 다룬 연구에서 특정 시기의 직령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고찰하였

으며,<sup>3)</sup> 이은주(1998)는 직령의 형태 변화를 옆자락의 구성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sup>4)</sup> 이상의 연구들은 직령의 부위별 형태 변화와 특성을 전반적이고 통시적으로 제시하는 데 일정한 한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변화에 따른 직령의 부위별 형태 변화와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직령의 부위별 형태가 변화되는 양상과 시기 등을 고찰한 다음 직령의 전체적인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별 형태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구분은 前報에서와 같이 제1기는 조선 건국 초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제2기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제3기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이다.

## II. 부위별 형태 특성

### 1. 옆자락이 있는 직령

前報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부위별 형태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5)</sup> <표 1>에 기초하여 부위별 형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앞·뒷길이의 차이

<표 1>에 의하면 직령은 앞뒤의 길이차이에 의해 前短後長形과 前後同長形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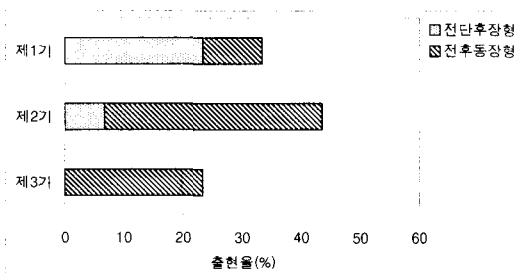
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전단후장형이 30%, 전후동장형이 70%로서 전후동장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총 30점 중 제1기에는 전단후장형이 7점(23.3%), 전후동장형이 3점(10%)으로서 전단후장형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2기에는 전단후장형이 2점(6.7%), 전후동장형이 11점(36.7%)으로서 전후동장형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에는 7점 모두 전후동장형(23.3%)으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제1, 2기에는 전단후장형과 전후동장형이 병존하고, 제3기에는 전후동장형만 나타난다. 즉 전단후장형은 15세기와 16세기 전반에만

<표 1>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시기별 형태 비교표

시기 구분	고찰항목 착용자(생몰연대)	앞뒤 길이 차이		깃 양식		깃모양		결설 양식		안설 양식		소매모양		옆자락 모양		옆트임		여밌방법							
		전단후장	전후동장	이중깃	일반깃	반복판형칼깃	칼깃	반달깃	이중설	단설	이중설	단설	좌수형	복각지형	광수형	사각형	삼각형+사각형	사다리꼴형	트임없음	부분트임	전체트임	직접부착형근고름	직접부착형고름	간접부착형근고름	
제1기	이계윤(1431~1489)	●	●	●																					
	김흠조(1461~1528)		●	●																					●
	김흠조(1461~1528)		●	●															●						
	홍계강(1450년대 추정)	●		●	●									●									●	●	
	이인손(1477~1543)	●		●	●																		●	●	
	고운(1479~1530)		●	●	●														●					●	
	정온(1481~1538)	●		●	●																	●			
	정응두(1508~1572)	●		●	●			●																●	
	신언식(1519~1582)	●		●	●			●																●	
이육형(?~1585)	●		●	●																			●		
제2기	정휴복(1529~1604)		●	●																			●		
	정휴복(1529~1604)		●	●																				●	
	채무여(1537~1594)		●	●																				●	
	이언웅(중종~선조추정)		●		●										●									●	
	송문창(1554~1594)		●		●		●																		●
	이응태(1556~1586)		●		●		●																		●
	이응태(1556~1586)		●		●		●																		●
	제주고씨(1560~1640추정)	●			●		●																		●
	제주고씨(1560~1640추정)		●		●		●																		●
	홍직령(인란전후추정)		●		●		●																		●
	김위(인란후추정)		●		●		●									●									●
김위(임란후추정)		●		●		●																		●	
이지원(1616~1666)	●		●		●																			●	
제3기	김덕원(1634~1704)		●		●																			●	
	홍우협(1655~1691)		●		●																			●	
	홍감보(1699~1763)		●		●																			●	
	창덕궁박물관소장 백직령		●		●																				●
	창덕궁박물관소장 홍직령1		●		●																				●
	창덕궁박물관소장 홍직령2		●		●																				●
고복남소장 마포직령		●		●																				●	



<그림 1> 앞·뒷길이 차이의 시기별 변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전후동장형은 16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출현한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단후장형에서 전후동장형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16세기 후반이라고 생각된다.

전단후장형은 15세기와 16세기 전반에 특히 유행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時俗으로 1543년(중종 38)에 윤은보가 왕명에 의해 편집한 《大典後續錄》에 “대소인원은 文武職을 막론하고 앞자락은 땅에서 3寸

떨어지게 하고 뒷자락은 땅에서 2寸 떨어지게 하며, 서민의 表衣 역시 앞자락은 땅에서 4寸 떨어지게 하고 뒷자락은 땅에서 3寸 떨어지게 했던 규정”<sup>6)</sup>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당시 의복의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1寸 정도 짧았던 時俗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의복의 앞길이를 짧게 함으로써 몸을 숙였을 때 앞자락이 땅에 끌리는 것을 막고 보행시 앞자락이 발에 걸리는 불편함을 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단후장형은 활옷, 원삼, 배자, 치마 등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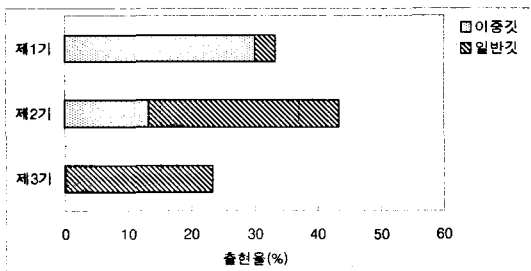
전단후장형인 경우 앞길이와 뒷길이의 차이는 제1기에서 제2기로 갈수록 3cm, 4cm, 6cm, 9cm, 11cm, 13cm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된다. 또한 전단후장형 유물 9점 중 길이 차이가 3~6cm 범위의 것이 6점이고, 9~13cm 범위의 것이 3점인 것으로 보아 앞길이와 뒷길이의 차이는 3~6cm정도가 보편적이었다고 본다.

2) 깃양식과 깃모양

<표 1>에 의하면 깃양식은 이중깃과 일반깃으로 분류되고, 깃모양은 반목판형칼깃, 칼깃, 반달깃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깃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이중깃이 41.4%이고 일반깃이 58.6%으로서 일반깃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총 30점 중 제1기에는 이중깃이 9점(30%), 일반깃이 1점(3.3%)으로서 이중깃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2기에는 이중깃이 4점(13.3%), 일반깃이 9점(30%)으로서 일반깃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에는 7점 모두 일반깃(23.3%)으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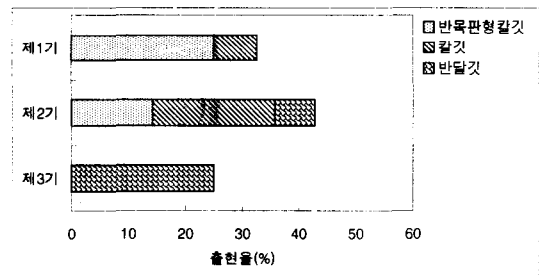


<그림 2> 깃양식의 시기별 변화

<그림 2>에 의하면 제1, 2기에는 이중깃과 일반깃이 병존하고 있으나, 제3기에는 일반깃이 주류를 이룬다. 즉 이중깃은 15세기와 16세기 전반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일반깃은 16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출현한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중깃에서 일반깃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16세기 후반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깃모양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반목판형칼깃이 39.3%이고, 칼깃이 28.6%이며, 반달깃이 32.1%로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고찰가능한 28점<sup>7)</sup> 중 제1기에는 반목판형칼깃이 7점(25%), 칼깃이 2점(7.1%)으로서 반목판형칼깃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제2기에는 반목판형칼깃이 4점(14.3%), 칼깃이 6점(21.4%), 반달깃이 2점(7.1%)으로서 칼깃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는 가운데 반달깃도 출현하고 있다. 제3기에는 7점 모두 반달깃(25%)으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깃모양의 시기별 변화

<그림 3>에 의하면 제1기에는 반목판형칼깃과 칼깃이 병존하고, 제2기에는 반달깃도 출현하여 깃모양의 세 유형이 모두 나타나며, 제3기에는 반달깃이 주류를 이룬다. 즉 반목판형칼깃은 건국 초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칼깃은 16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반달깃은 17세기 전반에 출현한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반목판형칼깃에서 칼깃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16세기 후반이고, 칼깃에서 반달깃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17세기 전반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깃양식에 따른 깃모양을 살펴보면, 이중깃의 경우 정응두의 직령을 제외하고 모두 반목판형 칼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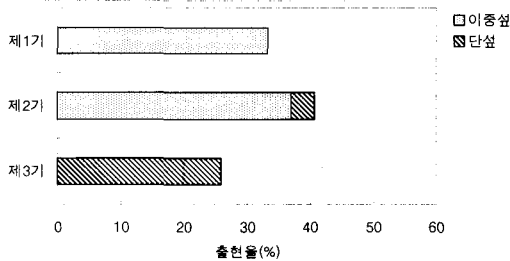
이며, 일반깃의 경우 16세기 후반까지는 모두 칼깃이고 17세기 전반부터는 모두 반달깃이다. 따라서 직령의 깃은 건국 초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이 유지되다가 16세기 후반에 일반깃의 칼깃으로 변화되고, 다시 17세기 전반에 일반깃의 반달깃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설양식과 여밈정도**

<표 1>에 의하면 설양식은 이중설과 단설으로 분류된다.

겉설 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이중설이 70.4%이고 단설이 29.6%로서 이중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고찰가능한 27점<sup>8)</sup> 중 제1기에는 9점 모두 이중설(33.3%)이고, 제2기에는 이중설이 10점(37%), 단설이 1점(3.7%)으로서 이중설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에는 7점 모두 단설(25.9%)으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겉설양식의 시기별 변화

<그림 4>에 의하면 제1기에는 이중설이 주류를 이루고, 제2기에는 이중설과 단설이 병존하며, 제3기에는 단설이 주류를 이룬다. 즉 이중설은 17세기 전반까지 집약되어 나타나고, 단설은 임란이후 17세기

전반에 한 점이 보이고 17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중설에서 단설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17세기 전반이라고 생각된다.

안설의 경우는 전 시기에 걸쳐 모두 단설으로 나타나고, 이중설은 제3기의 홍우협<sup>9)</sup>의 직령에서만 발견되는데, 홍우협<sup>9)</sup>의 직령은 현존하는 직령 중 유일하게 안설이 이중설로 된 예이다. 이와 같이 안설이 이중설로 된 예는 17세기 후반의 여자 장의<sup>9)</sup>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로써 직령의 안설이 이중설로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일시적인 유행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겉설의 여밈정도는 여밈폭비<sup>10)</sup>로서 추정할 수 있다. 즉 겉설이 이중설인 경우 여밈폭비를 보면 위는 평균 92.4%, 아래는 평균 168.5%로서 위는 거의 옆선에 닿고 아래는 옆선을 지나므로 겉설은 여밈이 매우 깊은 重裱形이라고 할 수 있다. 겉설이 단설인 경우 여밈폭비를 보면 위는 최대 66.7%에서 최소 43.9%로 후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아래도 역시 최대 145.5%에서 최소 77.6%로서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여밈폭비의 감소는 겉설이 단설화되면서 초래되는 구성법의 변화로서 이에 따라 여밈방법 또한 좁고 짧은 끈고름에서 넓고 긴 고름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4) **소매모양**

<표 1>에 의하면 소매모양은 착수형, 콩각지형, 광수형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소매모양의 유형별·시기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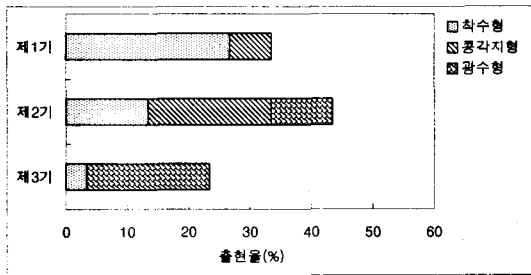
<표 2>에 의하면 소매모양의 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착수형(43.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광수형(30%), 콩각지형(26.7%)의 순이며, 제1기에서 제3기로 갈수록 착수

<표 2> 소매모양의 유형별·시기별 출현율

소매모양	시기	유물수 (출현율:%)			출현율 양상
	제1기	제2기	제3기	유형별 소계	
착수형	8 (80)	4 (30.8)	1 (14.3)	13 (43.3)	감소
콩각지형	2 (20)	6 (46.2)	없음	8 (26.7)	감소
광수형	없음	3 (23.0)	6 (85.7)	9 (30)	증가
시기별 소계	10 (33.3)	13 (43.3)	7 (23.3)	30	

형과 콩각지형은 점점 감소하고 광수형은 증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총 30점 중 제1기에는 착수형이 8점(26.7%), 콩각지형이 2점(6.7%)으로서 착수형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제2기에는 착수형이 4점(13.3%), 콩각지형이 6점(20%), 광수형이 3점(10%)으로서 콩각지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에는 7점 중 착수형이 1점(3.3%), 광수형이 6점(20%)으로서 광수형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소매모양의 시기별 변화

<그림 5>에 의하면 제1기에는 착수형과 콩각지형의 두 유형이 나타나고, 제2기에는 광수형도 출현하여 소매모양의 모든 양식이 나타나며, 제3기에는 광수형이 주류를 이룬다. 한 예로 정휴복(1529~1604)의 직령 두 점의 소매모양을 보면 하나는 착수형이고 다른 하나는 콩각지형으로서 16세기 후반에 착수형과 콩각지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국 초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유행했던 착수형이 16세기 후반에 콩각지형으로 변화되고, 콩각지형은 다시 17세기 전반에 광수형으로 변화되어 제3기에는 소매모양이 광수형으로 단일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소매모양 역시 前報의 유형별 특성에서와 같이 세 시기에 뚜렷한 변화가 확인된다. 즉 제1기는 '소매모양의 안정기'라고 할 수 있고, 제2기는 '소매모양의 생성기 및 혼란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제

3기는 '소매모양의 정리기 및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착수형은 제2기에 콩각지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다시 광수형이 출현하면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가, 제3기에 다시 출현하게 된다. 제3기의 착수형의 출현은 18세기에 장차 말달리기, 칼치기, 창찌르기, 활튀기, 들팔매, 던지기 등에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넓은 소매를 고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당시 실학자들의 넓고 긴 옷소매에 대한 비판여론<sup>11)</sup>과 이후 고종 21년(1884)에 廣袖衣는 소매가 넓어 행동에 불편하고 옛제도와의 맞지 않으므로 窄袖衣로 바꾸도록 했던 의복개혁령<sup>12)</sup>이 실제 의생활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제3기의 착수형 1점은 바로 고종 21년 의복개혁령 이후의 유물이다.

5) 화장과 소매통

화장과 소매통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소매통은 소매통比<sup>13)</sup>로써 대신한다. <표 3>은 시기별 화장, 소매통比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표 3>에 의하면 착수형의 경우 화장이 제1기와 제2기에 각각 127cm, 125.6cm로서 긴 편이지만 제3기에는 70cm으로 굉장히 짧아졌다. 소매통比는 제1기에는 74.0%, 제2기에 67.7%, 후기에 81.3%로서 큰 변화가 없으므로 배래선은 전 시기에 걸쳐 수구로 갈수록 소매통이 좁아지는 사선을 이룬다.

콩각지형의 경우 화장이 제1기와 제2기에 각각 127cm, 116.3cm로서 제1기에는 착수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제2기에는 착수형보다는 짧아졌다. 소매통比는 제1기에 117.6%, 제2기에 114.2%로서 큰 변화가 없으므로 배래선은 진동점 아래로 약간 드리워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광수형의 경우 화장이 제2기와 제3기에 각각 109.7cm, 106.1cm로서 착수형과 콩각지형보다 무려 10~20cm 정도 짧아졌다. 소매통比는 제2기에는 121.8%로서 콩각지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제3기에

<표 3> 시기별 화장·소매통比 비교표

소매모양	착수형	콩각지형	착수형	콩각지형	광수형	착수형	광수형
화장(M)	127	127	125.6	116.3	109.7	70	106.1
소매통比(M)	74.0	117.6	67.7	114.2	121.8	81.3	180.3

는 180.3%로서 급격히 증가되어 소매통이 옷길이의 거의 반에 이르는가 하면 배래선은 거의 직선이면서 좌우 모서리 부분만 곡선을 이룬다.

이상에서 제1기에 화장이 특히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의 時俗으로 《大典後續錄》에 “대소인원은 문무직을 막론하고 소매의 길이는 손을 지나 다시 팔꿈치까지 되돌아 오게 하고, 서민의 표의 역시 소매의 길이는 손을 지나 6寸으로 하게 했던 규정”<sup>14)</sup>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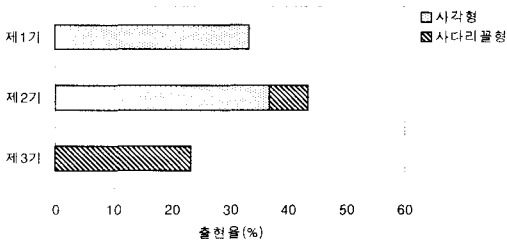
한편, 현존하는 최초의 광수형 직령인 16세기 후반의 이연웅의 직령은 진동이 파져서 광수형이기는 하지만 소매통비가 115.6%로서 당시의 룡각지형의 114.2%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이연웅의 것은 착수형에서 광수형으로 변화되는 과도기 단계의 소매모양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6) 옆자락모양

<표 1>에 의하면 옆자락의 모양은 사각형과 사다리꼴형으로 분류된다.

옆자락모양의 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사각형이 70%이고 사다리꼴형이 30%으로서 사각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총 30점 중 제1기에는 10점 모두 사각형(33.3%)이고, 제2기에는 사각형이 11점(36.7%), 사다리꼴형이 2점(6.7%)으로서 사각형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에는 7점 모두 사다리꼴형(23.3%)으로 나타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옆자락모양의 시기별 변화

<그림 8>에 의하면 제1기에는 사각형이 주류를 이루고, 제2기에는 사각형과 사다리꼴형이 병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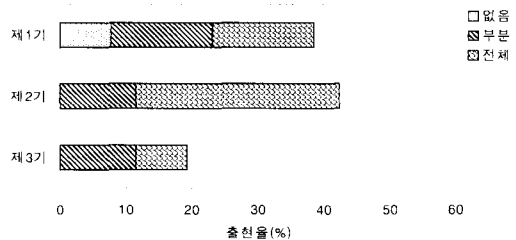
제3기에는 사다리꼴형이 주류를 이룬다. 즉 사각형은 17세기 전반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사다리꼴형은 임란이후 17세기 전반에 두 점이 나타나고 17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사각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17세기 전반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17세기 전반에 사각형의 옆자락이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되는 것은 직령의 유형이 뒤젓힘형으로 변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7) 옆트임

<표 1>에 의하면 트임은 전혀 트이지 않은 경우, 일부가 트인 경우, 전체가 트인 경우로 분류된다.

옆트임의 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 볼 때 트임없음이 8.3%, 부분트임이 37.5%, 전체트임이 54.2%로서 전체트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고찰가능한 26점 중 제1기에는 트임없음이 2점(7.7%), 부분트임이 4점(15.4%), 전체트임이 4점(15.4%)으로서 세 양식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제2기에는 부분트임이 3점(11.5%), 전체트임이 8점(30.8%)으로서 전체트임이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에는 부분트임이 3점(11.5%), 전체트임이 2점(7.7%)으로서 두 양식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낸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옆트임의 시기별 변화

<그림 9>에 의하면 제1기에는 세 양식이 모두 나타나고, 제2, 제3기에는 부분트임과 전체트임이 병존한다. 즉 트임없음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만 나타나고 있어 이 시기에만 유행된 양식인데 반해 부분트임과 전체트임은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유행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령의 옆트임

정도는 일정한 제한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트임의 경우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특히 유행되었는데 이는 전술했듯이 직령의 옆자락이 밖주름형에서 뒤젓힘형으로 변화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랫자락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구성법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 8) 여밈방법

<표 1>에 의하면 여밈방법은 직접부착형 끈고름, 간접부착형 끈고름, 직접부착형 고름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직접부착형 끈고름이 61.1%, 간접부착형 끈고름이 5.6%, 직접부착형 고름이 33.3%로서 직접부착형 끈고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고찰가능한 18점 중 제1, 2기에는 직접부착형 끈고름이 11점(61.1%), 간접부착형 끈고름이 1점(5.6%)으로서 직접부착형 끈고름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제3기에는 6점 모두 직접부착형 고름(33.3%)으로 되어 있다.

여밈방법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조선 건국 초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직접부착형 끈고름과 간접부착형 끈고름이 병존하는 가운데 직접부착형 끈고름이 현저하게 큰 비중을 나타내며, 17세기 후반부터는 위의 두 양식은 사라지고 직접부착형 고름만 나타난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부착형 끈고름에서 직접부착형 고름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17세기 후반이라고 생각된다. 끈고름의 경우 1쌍양식과 2쌍양식이 병존하지만 2쌍양식이 시기적으로 앞서며, 고름의 경우 1쌍양식만 사용되었다.

고름의 나비와 길이에 대해 보면, 먼저 겹고름의 나비는 끈고름의 경우 16세기 전반까지는 2cm 정도, 16세기 후반에는 3cm 정도, 17세기 전반에는 3.5cm 정도로 서서히 넓어지다가 17세기 후반에 끈고름에서 고름으로 변화되면서 5.6cm로 다소 넓어지다가 19세기에는 7cm 정도까지 넓어진다. 겹고름의 길이 또한 끈고름의 경우 27~31cm 정도이던 것이 고름의 경우 67, 81, 92, 97cm로 점점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직령의 겹고름은 후기로 갈수록 점점 넓고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끈고름의 경우 안

고름의 나비는 겹고름과 거의 같고, 길이는 겹고름과 같거나 약간 긴 경향을 나타낸다.

## 2. 옆자락이 없는 직령

前報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부위별 형태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sup>15)</sup> <표 4>에 기초하여 부위별 형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경우 제3기의 유물이 1점뿐이므로 논의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범위를 17세기 전반까지로 제한하고자 한다.

### 1) 앞·뒷길이의 차이

<표 4>에 의하면 직령은 앞뒤의 길이차이에 의해 前短後長形과 前後同長形으로 분류된다. 전 시기를 통해 볼 때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모두 전후동장형으로 나타난다.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총 16점 중 숨 또는 숨누비가 8점으로 주로 겨울철 방한용 포제로 착용되었으므로 앞뒤의 길이를 같게 하여 착용시의 간편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깃양식과 깃모양

<표 4>에 의하면 깃양식은 이중깃과 일반깃으로 분류되고, 깃모양은 반목판형칼깃, 칼깃, 당코형목판깃, 반달깃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깃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이중깃이 12.5%이고 일반깃이 87.5%로서 일반깃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옆자락이 있는 직령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중깃은 제1기에, 일반깃은 제2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유물이 대부분 제2기의 것이므로 일반깃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총 16점 중 제1기의 유물 1점(6.3%)은 이중깃이고, 제2기에는 이중깃이 1점(6.3%), 일반깃이 13점(81.3%)으로서 일반깃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의 유물 1점(6.3%)은 일반깃이다.

제1, 3기는 유물이 각 한 점씩이어서 단정짓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추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중깃은 15세기와 16세기 전반에만 나타나고, 일



<표 4>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시기별 형태 비교표

시기 구분	고찰항목 착용자(생물연대)	앞뒤 길이 차이		깃 양식		깃모양		겉설향양식		안설향양식		소매모양		무모양		당		옆트임		여밌방법					
		전단후장형	전후등장형	이중깃	일반깃	반목판형칼깃	칼깃	당도형목판깃	반달깃	이중설향	단설향	이중설향	단설향	착수형	풍가지형	광수형	삼각형	사다리꼴형	有	無	트임없음	부분트임	전체트임	직접부착형근고름	외접부착형고름
제1기	고운(1479~1530)	●	●	●					●		●	●			●			●	●			●			
제2기	정휴복(1529~1609)	●	●	●					●		●	●			●	●			●						
	정휴복(1529~1609)	●	●	●	●				●		●	●			●	●			●						
	정휴복(1529~1609)	●	●	●	●				●		●	●			●	●			●						
	고여우(1560~1640)	●	●	●	●				●		●	●			●	●			●						
	김덕령(1567~1596)	●	●	●	●				●		●	●			●	●			●						
	김덕령(1567~1596)	●	●	●	●				●		●	●			●	●			●						
	전박장군(임란직후)	●	●	●	●					●		●	●		●	●			●						
	전박장군(임란직후)	●	●	●	●					●		●	●		●	●			●						
	전박장군(임란직후)	●	●	●	●					●		●	●		●	●			●						
	김위(임란후)	●	●	●	●					●		●	●		●	●			●						
	정양우(1574~1647)	●	●	●	●					●		●	●		●	●			●						
	정양우(1574~1647)	●	●	●	●					●		●	●		●	●			●						
정양우(1574~1647)	●	●	●	●					●		●	●		●	●			●							
광해군(1608~1623)	●	●	●	●		●			●		●	●		●	●			●							
제3기	홍희준(1761~1841)	●	●	●		●			●		●	●		●	●			●	●						

반깃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중깃에서 일반깃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옆자락이 있는 직령에서와 같이 16세기 후반이라고 생각된다.

깃양식에 따른 깃모양을 살펴보면, 이중깃의 경우 반목판형 칼깃이고, 일반깃의 경우 17세기 전반까지 광해군의 직령이 당도형 목판깃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칼깃이며, 18세기 후반의 홍희준의 직령만이 반달깃이다. 따라서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깃은 건국 초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이 유지되다가 16세기 후반에 일반깃의 칼깃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옆자락이 있는 직령에서와 동일한 현상이다.

한편, 이중깃과 일반깃의 깃나비를 비교하면, 이중깃의 경우 깃나비가 13.5cm이고, 일반깃의 경우 대부분 9~10.5cm 범위인 것으로 보아 옆자락이 있는 직령에서와 같이 이중깃의 경우 깃나비가 더 넓었음을 알 수 있다.

3) 설향양식과 여밌정도

<표 4>에 의하면 설향양식은 이중설향과 단설향으로 분류된다.

겉설향의 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이중설향이 43.8%이고 단설향이 56.3%로서 두 양식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총 16점 중 제1기의 유물 1점(6.3%)은 이중설향이고, 제2기에는 이중설향이 6점(37.6%), 단설향이 8점(50%)으로서 두 양식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의 유물 1점(6.3%)은 단설향이다.

제1, 3기는 유물이 각 한 점씩이어서 단정짓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추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중설향은 16세기 후반까지 나타나고, 단설향은 임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에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중설향에서 단설향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옆자락이 있는 직령에서와 같이 17세기 전반이라고 생각된다. 안설향의 경우는 전 시기에 걸쳐 모두 단설향으로 나타난다.

겉설향의 여밌정도는 여밌폭比로서 추정할 수 있다.

즉 걸쇠이 이중선타인 경우 여밈폭比를 보면 위는 평균 76.1%, 아래는 평균 149.6%로서 위는 거의 옆선에 닿고 아래는 옆선을 지나므로 걸쇠은 여밈이 매우 깊은 증거형이라고 할 수 있다. 걸쇠이 단선타인 경우 여밈폭比를 보면 위는 평균 56.3%, 아래는 평균 140.3%로서 이중선타일 경우보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밈폭比의 감소는 걸쇠이 단선타화되면서 초래되는 구성법의 변화로서 옆자락이 있는 직령에서와 같은 맥락이다.

#### 4) 소매모양

<표 4>에 의하면 소매모양은 착수형, 콩각지형, 광수형 등으로 분류된다.

소매모양의 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착수형과 콩각지형이 각각 50%, 43.8%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광수형은 6.3%에 불과하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총 16점 중 제1기의 유물 1점(6.3%)은 착수형이고, 제2기에는 착수형과 콩각지형이 각각 7점씩(43.8%)으로 동일한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의 유물 1점(6.3%)은 광수형이다.

제1, 3기는 유물이 각 한 점씩이어서 단정짓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추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착수형은 16세기 후반까지 나타나고, 콩각지형은 임란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18세기에는 광수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착수형에서 콩각지형으로 변화되는 시기는 옆자락이 있는 직령에서와 같이 16세기 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임란이후라고 생각된다.

한편, 화장은 최소 81cm에서 최대 120cm의 범위로 나타나지만 평균 100cm로서 실체 활동하는데 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매통比는 착수형인 경우 평균 72.8%로서 배래선이 수구로 갈수록 소매통이 좁아지는 사선을 이루고, 콩각지형의 경우 평균 124.1%로서 배래선이 진동점 아래로 약간 드리워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 5) 무모양

<표 4>에 의하면 무모양은 삼각형과 사다리꼴형으로 분류된다.

무모양의 양식별 출현율은 전 시기를 통해서 볼

때 삼각형이 31.3%이고 사다리꼴형이 68.7%로서 사다리꼴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 출현율을 보면 총 16점 중 제1기의 유물 1점(6.3%)은 삼각형이고, 제2기에는 삼각형이 3점(18.8%), 사다리꼴형이 11점(68.8%)으로서 사다리꼴형이 현저하게 많은 비중을 나타내며, 제3기의 유물 1점(6.3%)은 삼각형이다.

제1, 3기는 유물이 각 한 점씩이어서 단정짓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추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무모양은 16세기 전반에는 삼각형이고,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는 삼각형과 사다리꼴형이 공존하며,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다시 삼각형인 것으로 보아 삼각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되어 일정 기간동안 두 양식이 공존하다가 다시 삼각형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 여밈방법

<표 4>에 의하면 여밈방법은 제1, 2기에 모두 직접부착형 끈고름 1쌍 양식이 사용되었다.

끈고름의 나비와 길이에 대해서 보면, 보통 나비는 2~4.5cm 정도이고, 길이는 35~44cm 정도이다. 그런데 17세기 전반의 광해군의 것은 길이가 77cm로 매우 긴데 이는 좁고 짧은 끈고름에서 넓고 긴 고름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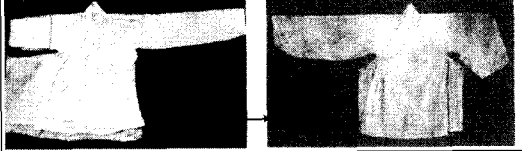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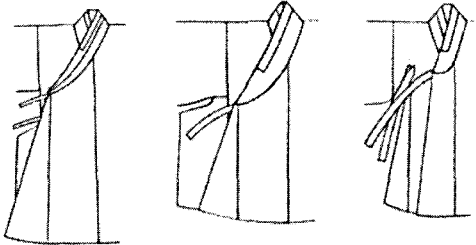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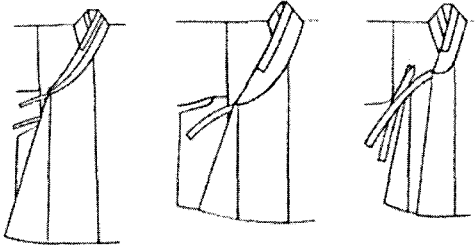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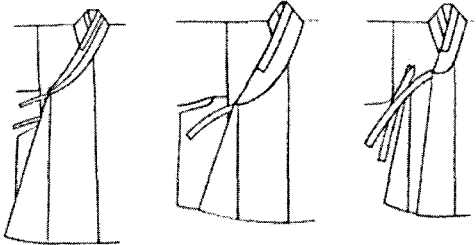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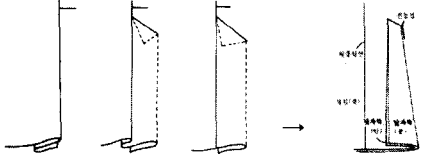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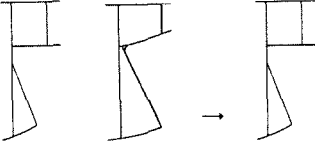
한편, 옆자락이 있는 직령은 걸쇠이 단선타화되면서 끈고름이 고름으로 변화되었는데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걸쇠이 단선타화된 이후에도 끈고름이 사용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 III. 부위별 형태 상호간의 관련성

직령의 부위별 형태 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찰하기 위해 부위별 형태가 변화되는 양상과 시기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 기초하여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부위별 형태 변화를 보면, 양자 모두 옷길이, 깃, 걸쇠, 여밈폭비, 옆자락모양 등의 항목은 축소되었고, 소매, 여밈방법 등의 항목은 확대되었음

<표 5> 부위별 형태의 변화 양상과 시기

유형	NO	고찰항목	변화양상	변화시기	도식화	
옆자락 있는 직령	1	앞·뒷길이 차이	전후동장형→전후동장형	축소 16C 후반		
	2	깃양식과 깃모양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 →일반깃의 칼깃 →일반깃의 반달깃	축소 16C 후반, 17C 전반		
	3	걸섶양식	이중섶→단섶	축소 17C 전반		
	4	여밈폭比	상:92.4%→66.7-43.9%	축소 17C 전반		
	하:168.5%→145.5-77.6%		축소 17C 전반			
	5	여밈방법	직·간접부착형끈고름 →직접부착형 고름	확대 17C 후반		
	6	소매	모양	착수형→풍각지형→ 광수형	확대 16C 후반, 17C 전반	
	화장	127cm→116.3cm→106.1cm	축소 "			
	소매통比	74%→114.2%→180.3%	확대 "			
	7	옆자락모양	사각형(안주름형, 안파주름형, 옆주름형) →사다리꼴형(뒤젓힘형)	축소 17C 전반		
옆자락 없는 직령	8	앞·뒷길이 차이	전후동장형→전후동장형	축소 16C 후반	NO.1 참조	
	9	깃양식과 깃모양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 →일반깃의 칼깃 →일반깃의 반달깃	축소 -	NO.2, 3, 4, 5 참조	
	10	걸섶양식	이중섶→단섶	축소 17C 전반		
	11	여밈폭比	상:76.1%→56.3% 하:149.6%→140.3%	축소 축소 17C 전반		
	12	여밈방법	직접부착형 끈고름 →직접부착형 고름	확대 -		
	13	소매	모양	착수형→풍각지형→ 광수형	확대 -	NO.6 참조
		화장	94.9cm→105.1cm→103cm	일정 "		
	소매통比	72.8%→124.1%	확대 "			
14	무모양	삼각형, 사다리꼴형 →삼각형	일정 17C 후반			

- 자료부족으로 정확한 변화 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표시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즉 직령의 옷길기와 품, 그리고 옆선 쪽의 부피감은 간소화되는 반면 소매는 크고 관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직령의 부위별 형태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깃나비와 깃양식의 관계

깃나비의 치수 변화는 깃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깃나비가 감소되면서 깃양식이 이중깃에서 일반깃으로 변화되는데, 이는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없는 직령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중깃과 일반깃의 깃나비를 비교하면, 이중깃의 경우 깃나비가 주로 12~17.5cm 범위이고, 일반깃의 경우 이연웅과 김덕원의 것이 각각 14cm, 13.2cm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11.5cm 범위인 것으로 보아 이중깃의 경우에 깃나비가 더 넓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깃나비가 13~15cm로 넓은 경우 주로 이중깃으로 처리했는데 이중깃은 깃나비가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넓은 깃의 중간 부분을 꼬집어 박아 이중깃선을 넣음으로써 실용적 측면에서 착용시 깃이 겹쳐지거나 처지는 것을 방지하여 형태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적 측면에서 바느질선에 의해 면을 분할함으로써 선장식 효과를 표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꼬집어 박기는 조선시대 치마단에 파이핑 효과를 겸한 단처리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전통복식에 폭넓게 사용된 기법이다.<sup>16)</sup>

2) 여밈정도와 결선탄식과 여밈방법의 관계

여밈정도의 변화는 결선탄식과 여밈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밈정도가 줄어들면서 결선탄이 이중선탄에서 단선탄으로 변화되고, 여밈방법 또한 좁고 짧은 끈고름에서 넓고 긴 고름으로 변화된다. 이는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없는 직령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결선탄이 단선탄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끈고름이 사용되어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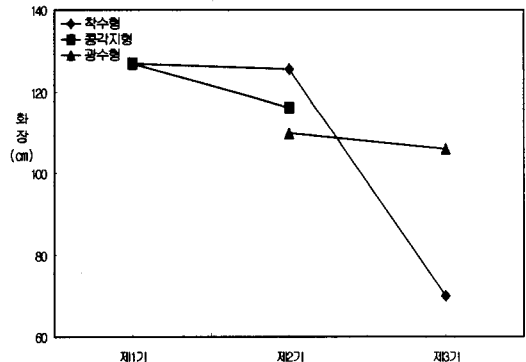
즉 결선탄이 여밈이 깊은 증거형의 이중선탄인 경우는 여밈 위치가 겨드랑이 아래의 옆선이므로 좁고 짧은 끈고름이 부피감이 적어 활동하는데 유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17세기에 여밈정도가 줄어들어 결선탄이 증거형의 이중선탄에서 단선탄으로 변화되면서 여밈 위치

또한 옆선에서 앞가슴 부위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착장시 보이지 않던 여밈방법이 노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밈을 강화한다는 실용적인 측면과 착장시 형태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미적인 측면에서 좁고 짧은 끈고름이 넓고 긴 고름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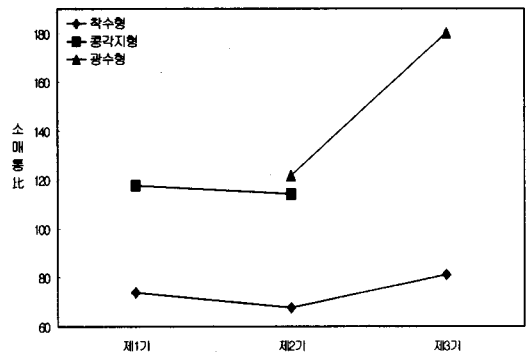
가려져 있던 여밈방법의 노출은 직령에 새로운 조형미를 부여하는데 넓고 긴 고름은 크고 관활한 소매자락과 어우러져 활동시 흔들리는 울동감을 연출한다.

3) 화장과 소매통의 관계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없는 직령 모두 소매모양을 보면 후기로 갈수록 화장은 점점 짧아지고 소매통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 <그림 7>과 같다.



<그림 6> 유형별 화장 비교



<그림 7> 유형별 소매통비 비교

<그림 6>과 <그림 7>을 통해 시기별 화장과 소매통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화장의 경우 착수형이 제일 길고, 그 다음이 콩각지형, 광수형으로 나타나고, 소매통비의 경우 광수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콩각지형, 착수형의 순이다. 즉 시기변화에 따라 화장과 소매통은 서로 반비례하고 있어 화장은 점점 짧아지는 반면 소매통은 점점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매는 화장이 길고 소매통이 좁은 형에서 화장이 짧고 소매통이 넓은 형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경우 화장이 아무리 짧아지더라도 평균 100cm 정도로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옆자락이 없는 직령이 주로 겨울철 방한용 포제로 간편하게 착용되었으므로 화장이 실제 활동하는데 적합한 길이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역사적으로 볼 때 의복의 소매는 착용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길거나 넓은 소매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이 노동하지 않는 신분임을 간접적으로 상징했다. 직령의 소매는 제1, 2기에는 소매통이 좁은 반면 화장이 길고, 제3기에는 화장이 짧은 반면 소매통이 넓다. 즉 소매를 길게 하거나 관촬하게 하여 활동성과 노동성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직령이 조선 사회에서 양반층의 대표적인 편복포제였음<sup>18)</sup>을 고려해 볼 때 의복의 형태와 사회적 역할이 착용자의 신분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옆자락위치와 옆자락모양의 관계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경우 옆자락의 위치 변화는 옆자락모양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옆자락이 옆선의 안에 있다가 옆선 밖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옆자락모양이 사각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된다.

옆자락이 옆선의 안에 있거나 옆선 밖으로 나와 노출되어 있는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밖주름형 직령의 옆자락모양은 사각형인데 반해 옆자락이 뒷길로 넘어간 뒤젓힘형 직령의 옆자락모양은 사다리꼴형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와같이 옆자락모양이 사각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되는 것은 옆자락이 뒤로 넘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앞길 아랫자락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한 구성법의 변화로서 아랫자락에 여유를 주어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뒤로 넘어간 옆자락은 뒷길에서 매듭단추나 실로 고정됨으로써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5) 소매모양과 무모양의 관계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경우 소매모양의 변화는 무모양에 영향을 미친다. 즉 소매모양이 착수형, 콩각지형, 광수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무모양이 사다리꼴형에서 삼각형으로 변화된다.

삼각형과 사다리꼴형의 무가 일정기간 공존하다가 17세기 후반에 삼각형의 무로 변화되는 것은 소매모양이 광수형으로 변화된 것과 관련된다. 무의 위쪽에 치수를 주어 무모양을 사다리꼴형으로 만드는 것은 의복의 구성상 최대소매통이 진동보다 작거나 같은 착수형이나 약간 큰 콩각지형에는 적합하지만 최대소매통이 진동의 두 배 정도까지 되는 광수형에는 겨드랑이 부위의 공간 부족으로 부적합하다. 따라서 소매모양이 착수형의 경우에는 구성상 삼각형과 사다리꼴형의 무가 모두 가능하지만 광수형의 경우에는 삼각형의 무만 가능한 것이다.

#### 6) 소매모양과 襟의 관계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경우 소매모양의 변화는 襟의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 즉 소매모양이 착수형, 콩각지형, 광수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당이 사라지게 된다.

겨드랑이 아래의 당은 착수형과 콩각지형의 소매에는 사용되었으나 광수형의 소매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용적인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착수형과 콩각지형의 소매는 옆선과 소매배래 사이의 각도가 직각에 가까워 활동시 겨드랑이 부위가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당을 달면 옆선과 소매배래 사이의 각도가 완만해져 찢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광수형의 소매는 옆선과 소매배래의 각도가 거의 나란하여 활동시 찢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당은 겨드랑이 부위에 여유를 주어 평면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성법으로서 동작 기능성을 부

여한다는 실용성으로 인해 조선시대 복식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한편, 남녀의 저고리와 여자 장의 등에 사용된 당은 다른 색의 천으로 제작되어 의복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동작 기능성과 함께 미적인 역할도 도모하고 있다.

#### 7) 부위별 형태 변화와 복식미의 관계

이상에서 직령의 부위별 형태는 시기변화에 따라 형태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축소되거나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변화정도는 옆자락이 있는 직령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부위별 형태의 변화는 직령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실루엣의 변화로 인해 복식미의 변화가 초래된다.

직령의 복식미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1기에는 옆자락이 옆선 안으로 들어가 있고, 소매가 길고 좁아 전체적으로 길고 슬림한 실루엣으로 단정한 복식미를 연출한다. 제2기에는 옆자락이 옆선 밖으로 노출되어 펄럭이고 소매 또한 소매통이 넓어져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증가되어 풍성한 복식미를 연출한다. 제3기에는 옆자락이 뒤로 넘어가 뒷길에서 고정됨으로써 옆선쪽의 부피감은 감소되는 반면 소매는 더욱 크고 관활해 졌다. 이로써 직령은 적절하게 몸에 맞는 채간부와 뒷길에서 고정된 옆자락으로 인해 착용시 단정한 차림새를 나타내는 동시에 넓은 소매자락으로 인해 풍성하고 휘날리는 차림새 또한 나타냄으로써 강약의 조화에 의한 복식미를 연출한다. 강약의 조화는 조선후기의 보편적인 복식미로서 여성의 밀착된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의 차림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IV. 결론

이상 직령의 부위별 형태가 변화되는 양상과 시기, 그리고 부위별 형태들 간의 상호 관련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직령의 부위별 형태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는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이며, 구체적인 변화양상과 상호간의 관련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6세기 후반에 변화하는 직령의 부위는 앞·뒷 길이차이이다. 전단후장형은 옆자락이 있는 직령에

서만 나타나며 16세기 후반에 전후동장형으로 변화되었다. 전단후장형의 앞뒤의 길이 차이는 3, 4, 6, 9, 11, 13cm 등으로 점점 증가하며, 3~6cm정도가 보편적이다.

2. 17세기 전반에 변화하는 직령의 부위는 겹설향식과 여밈폭비, 옆자락모양 등이다. 겹설향식과 여밈폭비를 보면,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없는 직령 모두 국초부터 여밈이 깊은 증거형의 이중설향이 유지되다가 17세기 전반에 여밈이 얇은 단설향으로 변화되는데 단설향인 경우 여밈정도는 제3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안설향은 전 시기에 걸쳐 모두 단설향이다. 옆자락모양은 17세기 전반에 사각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되며, 옆트임정도는 트임이 없는 경우는 제1기에만 나타나고 일부트임 경우와 전체트임 경우는 모든 시기에 걸쳐 꾸준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제한없이 다양했다고 생각된다.

3.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에 계속해서 변화하여 형태가 두 번 변하는 직령의 부위는 깃양식과 깃모양, 소매모양 등이다. 깃양식과 깃모양은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없는 직령 모두 국초부터 이중깃의 반목판형칼깃이 유지되다가 16세기 후반에 일반깃의 칼깃으로 변화되고, 17세기 전반에 일반깃의 반달깃으로 변화되었다. 소매모양은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없는 직령 모두 국초부터 착수형이 유지되다가 16세기 후반에 풍각지형으로 변화되고, 17세기 전반에 광수형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무모양 역시 두 번 변하지만 그 시기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약간 늦다. 즉 무모양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 사이에 삼각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되어 일정 기간 두 양식이 병존하다가 17세기 후반에 삼각형으로 변화되었다.

4. 직령의 각 부위별 형태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변화한다. 깃나비가 감소되면서 깃양식이 이중깃에서 일반깃으로 변화되고, 여밈정도가 줄어들면서 겹설향이 증거형의 이중설향에서 단설향으로 변화되고 여밈방법 또한 좁고 짧은 끈고름에서 넓고 긴 고름으로 변화되며, 화장이 짧아지면서 소매통이 넓어져 소매모양은 길고 좁은 형에서 짧고 넓은 형으로 변화되는데, 이상은 모두 옆자락이 있는 직령과 없는 직령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옆자락이 있는 직령의 경우 옆자락의 위치 변화, 즉 옆자락

이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뾰주름형, 뒤젓힘형 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옆자락모양이 사각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되고, 옆자락을 뒷길에서 매듭단추나 실로 고정하는 방법도 생겨났다.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경우 소매모양이 착수형, 콩각지형, 광수형 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무모양이 사다리꼴형에서 삼각형으로 변화되고, 거드랑이 아래의 당도 사라졌다.

5. 직령의 부위별 형태 변화는 복식미에 영향을 준다. 직령은 제1기에는 옆자락이 옆선 안으로 들어가 있고 소매가 길고 좁아 전체적으로 길고 슬림한 실루엣으로 단정한 복식미를 연출한다. 제2기에는 옆자락이 옆선 밖으로 노출되어 펄럭이고 소매통 또한 넓어져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증가되어 풍성한 복식미를 연출한다. 제3기에는 뒤로 넘어가 뒷길에서 고정된 옆자락으로 인해 단정한 차림새를 나타내는 동시에 넓은 소매자락으로 인해 풍성하고 휘날리는 차림새를 또한 나타냄으로써 강약의 조화에 의한 복식미를 연출한다.

### 참고문헌

- 1) 이주영, 권영숙 (2003). 조선시대 직령의 유형과 특성. **복식**, 53(6).
- 2) 金美子 (1981). 直領에 관한 연구. **服飾**, 5.
- 3) 李海英 (1989). **韓國 直領交襟式 袍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朴聖實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美子 (1995). 우리나라 포(袍)의 종류와 변천.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梁淑鄉 (1996). **朝鮮後期 一般服飾에 關한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인우 (1997). 조선중기 일상복의 구조와 구성 -16·17C 출토복식 중심-. **服飾**, 35.
- 4) 李恩珠 (1998).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이주영, 권영숙 (2003). 앞의 논문, pp. 32-36.
- 6) 尹殷輔, 《大典後續錄》권3 禮典 雜令 「大小人員勿論 文武職表衣前則去地三寸後則去地二寸 … 庶民表衣前則去地四寸後則去地三寸…」
- 7) 형태파악이 불가능한 2점(이연웅의 직령, 이옥형의 직령)을 제외하였다.

- 8) 형태파악이 불가능한 3점(이연웅의 직령, 이옥형 직령, 홀직령)을 제외하였다.
- 9) 權瑛淑, 李珠英(1995).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長衣) 제도 -임란전후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研究報告**, 21, pp. 127-131.
- 10) 여밈폭비는 뒤품에 대한 싹나비의 비로 계산하였다. 여밈폭비(%) =  $\frac{\text{싹나비}}{\text{뒤품}/2} \times 100$
- 11) 朴趾源, **燕岩集** 권14 熱河日記 玉匣夜話.
- 12) 고종실록. 고종21년(1884) 윤5월25, 28일, 6월3일.
- 13) 소매통비는 착수형인 경우 진동에 대한 수구의 비율, 콩각지형과 광수형인 경우 진동에 대한 소매통이 가장 넓은 부위(최대소매통)의 비율 계산했다. 소매통비(%) =  $\frac{\text{수구}}{\text{진동}} \times 100$  또는 소매통비(%) =  $\frac{\text{최대소매통}}{\text{진동}} \times 100$
- 14) 尹殷輔, 《大典後續錄》권3 禮典 雜令 「大小人員勿論 文武職表衣…袖長過手復回至肘…庶民表衣袖長過手六寸…」; 安輝, 《述古常制》제12권 章服 衣裳.
- 15) 이주영, 권영숙 (2003). 앞의 논문, pp. 37-38.
- 16) 권영숙 (1999). **문수사 불복장 답호**. 전통복식, 한국전통복식연구회, 경춘사, p. 90.
- 17) 옆자락이 없는 직령의 구성양식별 출현율을 보면, 총 16점 중 홀이 2점(12.5%), 겹이 6점(37.5%), 솜이 6점(37.5%), 누비가 2점(12.5%) 등으로 홀직령의 비중이 적고 대부분 겹, 솜, 누비 등인 것으로 보아 옆자락이 없는 직령은 사계절 모두 착용되었으나 특히 겨울철 방한용 포제로 착용되었다고 생각된다.
- 18) 이주영, 권영숙 (2000). 조선시대 직령(直領)제도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2), pp. 237-260.